



## 가전산업의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에 한층 더 노력을.....

이헌조 / 가전산업협의회 회장  
(주)금성사 사장

새해를 맞이하여 전자공업인 여러분의 가정과 그 일터에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가전업계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과소비나 사치풍조니 해서 들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주신 업계 근로자 여러분과 험난한 경영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오신 경영자 여러분께 삼가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지난해 우리 가전 업계는 선진국의 무역 규제와 기술보호주의,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예치금 제도의 시행, 그리고 심각한 자금난 등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던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2일 가전산업협의회가 창립된 것은 펍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채 일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참으로 알차고 유익했다

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유통 경쟁력의 확보 방안, 밀반입 가전 제품에 대한 대책,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대응 방안, HDTV 등 첨단제품의 공동연구, 선진국의 특허 공세에 대비한 대책, 미래의 생활가전에 대한 공동연구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과제를 놓고 활발한 토의를 해왔습니다. 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세우는 것과는 별도로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시한 연장이라든가 특소세와 수입부품의 관세율 조정 등에 관한 건의를 정부 요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업계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가와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전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사가 경쟁자라기보다는 동반자라는 자세로 한국 가전산업이 경쟁력을 되찾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한국 가전 제품의 명성을 드날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새해도 우리 가전 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수출 시장의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국내 시장의 기반도 수입 개방의 파고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가전산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품질 혁신과 기술 개발에 노력해 제품을 고급화, 고부가가치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당면한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가전산업협의회는 유통시장의 개방과 수입개방 확대 같은 현안에 적극 대처하면서 미래제품에 대한 공동연구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국민들에게 국산 가전제품을 홍보하는 활동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가전산업협의회가 소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 각계에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가전산업협의회를 구심점으로 우리 가전업계가 활로를 찾아 힘차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